

광양백운초, 강추위 녹이는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 실시

나눔·환경사랑 실천, 백운사랑나눔바자회 운영 수익금 전액 중마노인복지관 및 유니세프 기증

광양백운초등학교 전교 학생회는 따뜻한 나눔과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백운사랑나눔 바자회'를 운영하고 모금된 1,923,470원을 중마노인복지관과 유니세프에 나누어 전액 기부했다. 백운사랑나눔바자회는 지난해 12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

전교육, 물품 기부, 바자회 준비, 바자회 개설 및 판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사진교육을 통해 나눔바자회의 의미와 목적에 공감한 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바자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였고,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전교 학생회에서 노인복지관과 유니세프에 전액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전교학생회 임원, 학교장, 담당 교사가 중마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김장김치 150kg을 전달했고, 나머지 금액은 유니세프 재단의 세계 어린이 돕기에 기부했다. 바자회에 참여한 학생은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그대로 버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게 사용된다고 하니 기뻐했다. 또한 기부한 물건을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 이웃과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도왔다는 게 매우 보람있게 느껴졌다.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복성고, '아이스팩 재활용 프로젝트' 실시



순천복성고는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순천역전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 아이스팩 기부는 버려진 아이스팩 속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기사를 보

고 문제의식을 느낀 복성고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아이스팩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여 버려지는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며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를 독려했다. 학교 구성원 역시 크게 호응하여 집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깨끗이 세척 후 기부하였다. 그 결과 아이스팩은 500개나 모여 지역의 순천역전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역전시장 상인연합회 김00씨는 "생선을 주로 취급하는 우리 시장 상인들은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선에 이어 올해도 지역 상인들을 위해 마음을 써준 것이 무척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함평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성과 평가회'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26일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담당자 및 유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성과 평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 발굴 위한 서비스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함평교육지원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초 5교, 중 4교, 고 2교, 특수학교 총 12교의 학생 110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 및 학습환경 조성, 생필품 및 의류, 치료치료비 등 학생 개인별 상황에 필요한 긴급생활 지원 ▲맞춤형 학습지도,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 언어치료비, 가족과 음식 만들기, 부모교육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학생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등이 있었다.

협의회는 2022년에 진행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의 운영 방향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하였다.

Wee센터 관계자는 "심리·정서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기관 연계 지원으로 긍정적인 학생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담양교육청, 담양교육 2023 설명회 개최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업무담당 교사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교육 2023'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함께 만드는 미래 행복한 담양교육' 실현을 목표로 2023년 담양교육지표, 대전환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담양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설문조사, 교육지원청 팀별 업무 되돌아보기를 통해 2022년 운영됐던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개선점을 찾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실행 연수 및 담양교육 2023 수립을 위한 TF 협의회의 건수립을 통해 구성됐다.



대전환과제는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자치, 가사 문학 향기 품은 담양인으로 선정했다.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은 학습적 및 비학습적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학습코칭 '이끌어듀오', 광주교대 및 전남대 예비교사 멘토링으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기자

관내 초·중학교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초·중학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배섬 고교학점제 콘서트'를 실시했다.

이번 보배섬 고교학점제 콘서트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의 진학지도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부 토크 콘서트형 특강'과 '2부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교원 대상 연수는 남악고등학교 최일남 선생님을 초청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이해를 통한 과목선택 및 진로 지도방안'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통한 학교현장에서의 진학지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학부모 대상 연수는 해남고등학교 이광식 선생님을 초청해 '자녀의 미래를 여는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면 뭘나다'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와 진로설계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2부 학부모 대상 1:1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원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질의하는 열의를 보였다.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진도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게 되고, 평소 아이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오미선 교육장은 "행사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학생들과 자녀들에 대한 진로진학 로드맵을 디자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연수와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